

금요 수필

삶에도 차레가 있다

아주 오래전,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무렵의 일이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는 꽤 오랜 시간 여러 어린이집을 돌아다녔다.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맹자의 어머니처럼 기강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논외의 논리로 재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손위 시누이가 말했다. "한 쉼이라도 아껴서 집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돈을 써 가며 어린이집을 보내느냐"고.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집은 늦게라도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의 유년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

자연에 바라보며 나는 순리를 배웠다. 봄에는 땅속이 썩을 퇴우고, 여름에는 그 썩이 무성한 녹음이 된다. 가을이 오면 그늘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다음 생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자연은 한 번도 제 차례를 이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건국은 결과로 드러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순리에 맞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 순간, 구였어 가장 중요하지를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일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코로나가 하강이던 시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며칠마다 사이에 두고 면회했다. 병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장면이 마치 마치 될 것만 같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그날 나는 진심했다. 훗날 분명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록 낙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그 후로 4년 남짓, 어머니는 딸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 집 안방에서 지내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 삼례 또한 우리 집에서 지냈다. 문상까지 끝났고, 이제 곧 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 다가올까. 돌이켜보면 "조금 더 인



한성진 시인

척 보셔 왔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의 후회일 것이다.

요즘 수면이나 매체를 통해 자식계산 어머니를 며칠마다 사이에 두고 면회했다. 병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장면이 마치 마치 될 것만 같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그날 나는 진심했다. 훗날 분명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록 낙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그 후로 4년 남짓, 어머니는 딸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 집 안방에서 지내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 삼례 또한 우리 집에서 지냈다. 문상까지 끝났고, 이제 곧 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 다가올까. 돌이켜보면 "조금 더 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나중'으로 기약 두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부모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 삶의 고단함을 함께 체감하며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일 수 있으나, 때로는 왜곡된 관계를 남기기도 한다.

유가 경전인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몰래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가릴 줄 알면 도에 가깝다. 오늘이 인은, 오늘 하고, 내일의 일은 내일 하라"

돌이켜보면 '가짜' 했어야 할 일을 미루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순서를 놓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오늘도 나는 장박의 자연을 바라본다. 양상한 겨울나무는 고요하지만, 평속의 뿌리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본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숨겨진 본성이 살아 있음을,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으며 조용히 기소 짓는다.

"한성진 시인은 2025년 계간 '애지'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수필을 쓰고 있다. 현재 정주시인협회 사무국장과 한국신문학인협회 전북지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사설

청와대·47개 부처 대상 정책 생중계 확대

청와대는 새해부터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생중계했고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 개방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은 "이는 역대 정부 최초 '라며'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 가질 사안 모두를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라며 "부처 행사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과감하게 실현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지회가 판단해서 생중계하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각 부처에서 결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중계 신청 수요가 얼마나 될지, 활성화가 잘 될지'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홍보와 소통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부처에서 생중계를 신청 안 할 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팡 "새벽 배송 해보겠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해를 로저스 쿠팡 대표가 "직접 야간 택배 기사 일을 체험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문회에서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로저스 대표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며 한 국회의원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로저스 대표는 "의원님과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다"며 "저는 이미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고, 의원님도 원하시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일주일 정도 같이 일해보시길 제안한다"고 한 데 대한 답이다.

의원들은 지난해 쿠팡 사업장에 119구급차가 출동한 내역을 분석해 119구급차 출동이 밤 9시와 밤 10시, 새벽 2시 등 야간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 위험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프레시백 반담과 분류 작업을 끝내고 물건을 차량에 실으면서 피다에이(PDA) 단말기로 스캔하는 시절에서야 근무를 시작했다고 쿠팡이 보기 때문이다.

로저스 대표가 이에 대해 "이 내용은 제가 아는 저희 시스템 작동 방식과 다르다"고 하자 의원은 "아까 요청했듯이 같이 택배 체험을 한 번 하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면 이런 작업 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키프로스에서 4차 회담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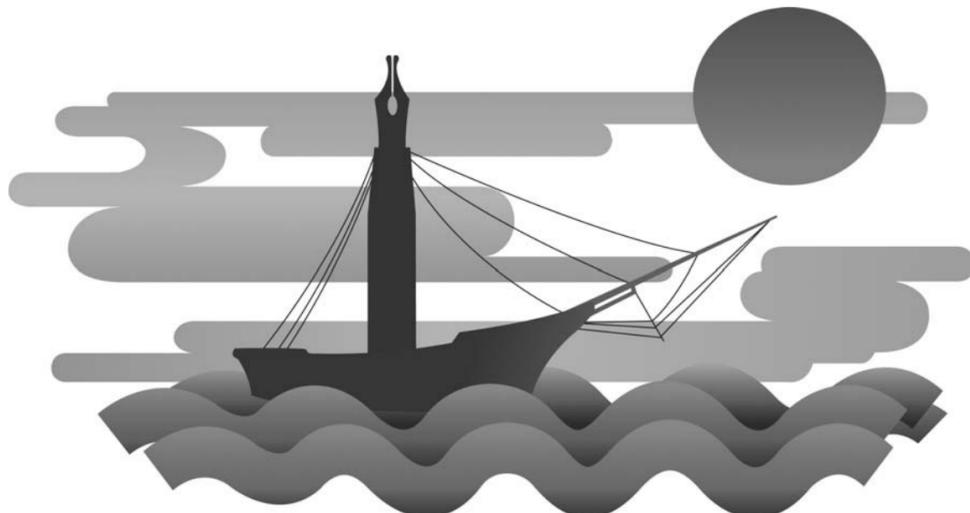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부터), 니코스 크리스토두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7일(현지 시간) 니코시아 대통령궁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ICE는 트럼프의 게슈타포"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위대가 이날 오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 사건에 항의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